

2022년 경제일반 전망

김흥년 NH농협금융연구소 금융연구실장
(lick97@nonghyup.com)

- I.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가며
- II. 글로벌 경제 여건 및 전망
- III. 국내 여건 및 전망
- IV. 종합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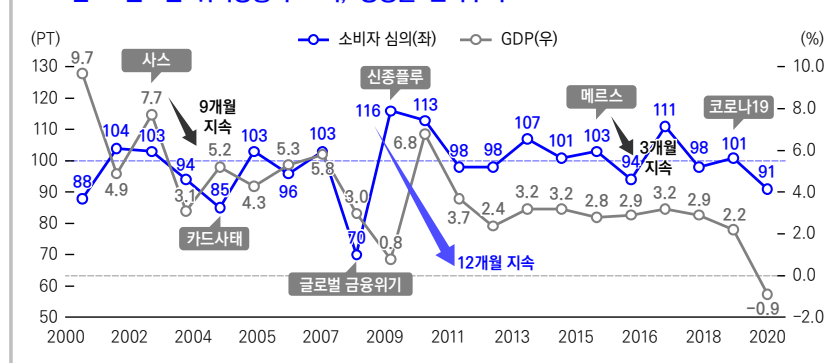
1

I.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가며

코로나19 팬데믹을 종식시키기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팬데믹은 일상을 마비시키는 파급력을 보였으나 이제는 그간의 노력으로 조금씩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시점이 곧 다가올 것이라 본다. 과거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인간은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나가고 있다.

과거 사스나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들은 단기적인 경기 충격을 보였다. 가장 장기적 경기 충격을 보였던 사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신종플루가 동시에 발생했던 시점이었다. 이 시기에 1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금융 및 실물경제가 타격을 입었으며 경기 악화가 장기간 진행되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는 과거 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으로 경제 및 일상을 마비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1 글로벌 위기상황과 소비, 성장을 변화추이



II. 글로벌 경제 여건 및 전망

그렇다면 이러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언제쯤 종식 되어질까?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섯 단계의 극복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5R 이라고 불리는 극복 및 정상화 과정은 해결(Resolve), 회복(Resilience), 복귀(Return), 재설계(Reimagination), 개혁(Reform)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기 극복이 진행되며 궁극적으로 과거의 시대 정의에서 진화된 '새로운 기준(정상)'(Next normal)의 시대로의 전환이 5R을 겪어나가면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 일부 선진국들은 해결(Resolve)단계를 지나 회복(Resilience)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보여진다. 향후 복귀, 재설계, 개혁 단계를 거치면서 과거와는 다른 세상의 기준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많은 학자들은 앞으로 변화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시발점이 되는 시기를 2022년으로 생각하고 있다. 여기서는 변화의 시작이 되는 2022년도의 세계 및 국내 경제는 어떻게 변동할지 살펴보고 전망해 보기로 하겠다.

1. 글로벌 경제성장률

2022년 세계경제는 선진국 및 주요 개도국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전세계적으로 백신접종 확대 및 기저효과를 통하여 경제성장률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들의 경우 워드 코로나 시대에 대한 기대감, 경기 부양 기조 유지, 경제 주체들의 심리 개선 등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신흥국 경기도 선진국 수요 회복에 따른 외부환경 개선 등으로 견조한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차질로 인한 중국경제 리스크 확대, G2 분쟁의 심화, 코로나 재확산 및 변이종 출현 등의 경기 하방 리스크가 상존하여 경기 회복 속도는 지역별로 차별화가 예상된다. 세계 교역 증가는 공급망 차질에도 불구하고 2021년 9.7%, 2022년에는 6.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경우 2021년 공급망 차질과 델타변이의 영향, 최근 변이가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 등의 영향으로 6%대의 성장을 기록하고, 2022년에는 5.2%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경우 2021년 8.0%, 2022년의 5.6%의 고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정치적 요인에서 비롯된 생산차질과 헝가

그룹이 트리거가 된 부동산시장 불안 등으로 최근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유럽의 경우 국가별로 경기 회복 속도는 상이할 것으로 보이며, 일본의 경우 기시다 후미오 신임총리의 아베노믹스 계승 등으로 경기 개선세 유지가 기대되고 있다.

표 1 경제권역 및 주요국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단위: 개수)

구분	2020	2021(F)	2022(F)
세계 경제성장률	-3.1	5.9	4.9
선진국	-4.5	5.2	4.5
미국	-3.4	6.0	5.2
유로	-6.4	5.0	4.3
일본	-4.6	2.4	3.2
신흥국	-2.1	6.4	5.1
중국	2.3	8.0	5.6
러시아	-3.0	4.7	2.9
인도	-7.3	9.5	8.5
브라질	-4.1	5.2	1.5
세계 교역증가율	-8.3	9.7	6.7

자료: IMF WEO(2021.10월)

2. 글로벌 물가

팬데믹 이후 유동성 확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인하여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흥국과 저소득 국가의 백신 공급 부족과 백신 접종 차질 및 신흥 변이 등으로 인한 감염병 통제 지연이 국제 상품가격의 상승으로 연결되는 추세이다.

특히, 국제유가의 경우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급락에 따른 기저효과와 글로벌 경기 및 교역량 회복, 천연가스 가격상승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대폭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코로나19 델타변이 확산에 따르는 수요 둔화 우려, 달러화 강세 등의 약세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리케인 등에 따르는 멕시코만 원유 생산 차질 등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2년 국제유가는 글로벌 교역 회복세 지속과 견조한 수요 증가세에 의한 상승압력은 유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OPEC+ 회원국들의 증산 가능성, 미국 셰일오일의 생산 확대 가능성 등의 유가 하방 리스크가 상승압력

과 대체로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표 2 주요기관 국제유가 전망

(단위: \$/배럴)

구분	2019	2020	2021(上)	2021(下)	2022
WTI	61.1	48.5	73.5	73.0	69.5
Dubai	65.4	50.2	73.0	73.0	66.3

자료: Bloomberg, IMF WEO(2021.10월)

3. 주요국 환율

2021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달러화는 강세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글로벌 경기의 빠른 회복세 및 연준(Fed)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시화 등으로 달러화 강세 기조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로존의 경기 회복 기대 및 안전자산 선호 확대 등의 영향으로 유로화 및 엔화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에도 달러화 강세로 타 통화의 약세가 예상되며 특히, 중국 위안화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된다. 달러화의 경우 연준의 테이퍼링 종료와 조기 금리인상 기대감 등으로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화의 경우는 미국과의 통화정책 조정 시차로 약세가 우려되나, 대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통한 유로화 매입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엔화의 경우는 새로운 내각의 출범을 통하여 아베노믹스가 유지되면서 달러화 강세에 따른 엔화 약세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안화는 미중 무역전쟁, 탈글로벌화에 따른 중국 공장의 붕괴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물가, 미중 관계 개선 기대감으로 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중 관계 급변, 외환시장에 대한 부동산 및 관련 기업의 부실 영향 전이 등의 내부 리스크 등으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계속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주요국 환율 전망

구분	2019	2020	2021	2022(上)	2022(下)
달러/유로	1.12	1.14	1.20	1.20	1.21
엔/달러	109.0	106.8	108.7	110.7	110.2
위안/달러	6.902	6.900	6.468	6.444	6.553

자료: Bloomberg, 주요 투자은행의 평균 전망치 (2021.7)

Ⅲ. 국내 여건 및 전망

1. 경제성장률

(1) 현황

우리나라 경제는 2020년도의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선진국의 강력한 통화 및 재정정책과 백신 접종 확대로 수출도 늘어나는 추세다. 또한, 두 차례의 추경과 초저금리 하에서 내수도 점차 회복되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 성장률 전망

2022년에는 우리나라 및 신흥국의 백신 접종 확대로 견조한 수요 회복이 예상되나, 글로벌 주요국의 경기 흐름이 약화되어 국내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높아진 자산가격과 부채규모에 따른 금융 불균형 등이 회복세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 2022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구분	2020	2021(上)	2021(下)F	2021(연간)F	2022F
GDP	-0.9	3.9	3.6	3.8	2.9

자료: 실적치는 한국은행, 2021년 하반기, 2022년 전망치는 필자 전망

2. 민간소비

2021년 중 민간소비는 2/4분기에 준내구재와 서비스를 중심으로 전년동기비 3.5%, 3/4분기에 비내구재를 중심으로 3.2% 증가하는 등 분야별로 고른 성장을 보여주며 견조한 회복세를 시현하였다.

2022년 역시 높은 백신 접종 완료율, 개선세가 뚜렷한 소비자 심리지수 등을 고려할 때 점진적인 민간소비 회복세는 이루어질 것이라 전망된다. 다만, 수출 및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노동시장 및 가계 소득 개선세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민간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5 2022년 우리나라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

(단위: %)

구분	2020	2021(上)	2021(下)F	2021(연간)F	2022F
민간소비	-5.0	2.4	3.8	3.2	2.8

자료: 실적치는 한국은행, 2021년 하반기, 2022년 전망치는 필자 전망

3. 설비·건설 투자

설비투자의 경우 2021년 견조한 수요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반도체 투자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IT부문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세를 보여 왔다. 건설투자의 경우 주거용 건물 건설 위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는데 2019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민간, 공공의 고른 건설수주 증가에 따라 2021년 상반기를 저점으로 점차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에는 세계경제 회복, 디지털 전환 관련 정보기술 부문 수요 지속 확대, 친환경 전환 관련 투자 확대 등으로 설비투자는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건설투자의 경우도 정부의 SOC 및 지역균형발전 투자 확대와 더불어 신규주택 공급 계획 등에 힘입어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3기 신도시 보상 및 착공 지연 등이 일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한다.

표 6 2022년 우리나라 설비투자·건설투자 증가율 전망

(단위: %)

구분	2020	2021(上)	2021(下)F	2021(연간)F	2022F
설비투자	7.1	12.3	6.0	9.0	2.8
건설투자	-0.4	-1.6	2.9	0.7	3.0

자료: 실적치는 한국은행, 2021년 하반기, 2022년 전망치는 필자 전망

4. 수출입·경상수지

2022년 수출은 세계 경기 확장세 지속에 따른 대외수요 확대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IMF에 의하면 전 세계 재화 및 서비스 교역량은 2021년 9.7% 반등한 후 2022년에는 6.7%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T 품목 수요가 재화의 교역을 견인하는 가운데 방역 규제 완화 등의 효과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으로 세계 수출시장의 수입 수요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주요국 경기부양책 축소 및 긴축 전환 가능성, 개발도상국 중심으로의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지속 등이 수

출 경기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2022년 수입증가율은 글로벌 경기개선으로 확대가 예상되나, 원자재가격이 2021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수지는 2021년 925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된 후, 2022년 800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행, 운송 부문을 중심으로 서비스 수지 적자폭이 축소된 반면,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의 자금수취로 인해 본원소득 수지 흑자가 증가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7 2022년 우리나라 수출·수입 증가율 및 경상수지 증가율 전망

(단위: %, 억 달러)

구분	2020	2021(上)	2021(下)F	2021(연간)F	2022F
수출	-5.5	26.1	18.0	21.8	1.0
수입	-7.1	24.1	26.3	25.2	0.8
경상수지	753	443	482	925	800

자료: 실적치는 한국은행, 2021년 하반기, 2022년 전망치는 필자 전망

5. 금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대는 2021년 6월부터 3년물 국채금리의 주된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2년 금리는 실제 인상 경로 및 이에 대한 시장의 기대 변화가 가장 중요한 금리 결정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2022년 외국인 채권자금 유입세 둔화 가능성도 우리나라 금리에 상승압력을 가하고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준금리 추가 인상 기대가 상당 부분 현재 금리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 국채 단순매입 등 가용한 금리 안정화 수단의 존재, 코로나19 변이 확산 가능성 등은 금리 상승폭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8 기준금리 변동 및 전망

(단위: %, 억 달러)

구분	2021(上)	2021(下)F	2021(연간)F	2022F
금리	1.1	1.6	1.4	1.8

자료: 실적치는 한국은행, 2021년 하반기, 2022년 전망치는 필자 전망

IV. 종합 전망

다사다난 했던 2021년이 지나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전세계 모든 인류가 이 상황을 벗어나길 염원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조금씩 출구가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2022년이 된다면 코로나 팬데믹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다. 약한 병증을 보이는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배하거나, 혁신적인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새로운 문화가 펼쳐질 세상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서막이 시작될 해가 2022년이 될 것이라고 본다.

2022년 세계경제는 코로나19 충격에서 점차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 가능성, 팬데믹 종식 여부, 주요국 정책기조 변화 등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불안 요인으로 남을 것이다.

2022년까지는 미국, 유럽에 이어 주요 신흥국까지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회복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확대된 수요를 원활하게 뒷받침할 만큼 공급이 신속하게 회복되지 못하는 공급 병목현상이 해소되는 데 시간이 소요되어 성장세가 다소 제약을 받고 물가상승률도 2022년 상반기까지는 높을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 이례적으로 경기부양적이었던 주요국의 재정지출 규모도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물가 불안과 금융 불균형 우려로 주요국 통화정책도 완화 정도가 줄어들어 거시정책의 성장기여 효과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고물가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경우 미연준의 조기 금리인상과 신흥국 중앙은행의 환율방어를 위한 동반 금리인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되고 글로벌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의 경우 민감한 정치 상황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경제 복합 리스크가 성장의 둔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우리 경제도 세계경제의 흐름과 같이 2022년에는 완만한 회복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성장과 물가경로의 불확실성은 2년간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상흔들을 치유해 나가는 과정을 해결해 나가면서 정리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와 같은 흐름이라면 긍정적이라 평가한다.

백신접종 확대 등으로 글로벌 방역체계가 봉쇄에서 공존으로 전환되면서 민간소비 성장세 확대와 대외수요 증대 등 경제활동의 원활화로 우리 경제는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글로벌 물류망의 원활한 작동 지연, 팬데믹 기간 중 노동력 이탈 및 공급망 훼손 등으로 인한 생산차질, 공급 병목현상 지속 등으로 최근 확산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기반이 크게 훼손된 대면서비스업 및 자영업 종사자 등 경제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위드코로나로 방역체계 전환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으로 가려져 있던 저출산·고령화,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구조적 요인의 중장기 성장동력 약화 문제도 우리 경제의 취약요인으로 부각 될 가능성도 높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에 적응하고 있는 인간의 삶은 앞으로의 산업과 경제와 이데올로기에 수많은 변화를 보일 것이다. 넥스트 노멀로 일컬어지는 새로운 기준을 갖은 세대의 출현이 내년에는 가시화할 가능성이 높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내년의 상황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홍년(2021), 「포스트 코로나 미래환경 트렌드 점검」, NH금융연구소
2. 한국금융연구원(2021), “2021년 금융동향과 2022년 전망 세미나”
3. 현대경제연구원(2021), “2022년 한국경제 전망”, 경제주평 21-24